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평안남도 양덕군을 독특한 다기능체육문화휴양지, 료양치료기지로 변모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신 군인건설자들과 도내인민들, 돌격대원들의 견인불발의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대상건물팔조공사와 지붕외우기공사, 내외부미장공사가 계속되고 스키장주로타기와 도로개설, 수로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됨으로써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당에서 구상한대로 자연지대적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있는 관광지구형성되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구획구분과 배치가 실용적이며 매 건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의 말씀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가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창조물이라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것이라고, 이곳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넣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재치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승강기와 굴림식사도를 비롯한 설비제작을 모두 주요군수공장들에 맡겨보았는데 나무랄데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천휴양과 료양시설들에 대한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기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부문에서 봉사준비도 잘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녀달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친지가벽되었다고, 군인건설자들이 폭풍같은 기세로 한개 도시구획형성과도 같은 방대한 공사를 해제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적으로 제일 전투력있는 이 부대에 건설을 맡기기로 했다고, 전문건설부대 못지 않게 건설을 잘한다고, 정말 힘이 있는 부대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비약을 선도하며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당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를 끝없이 펼쳐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열의, 무한대한 정신

력과 최강의 전투력에 의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적정책이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이 인민군대를 믿고 못해낸 일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당의 결심을 실천하는것, 당의 명령앞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로 화답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특유의 기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무조건성, 결사판철의 위력으로 실천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당의 구상은 곧 실천의 력사로 씌어져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런 군대와 함께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것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긍지로 여긴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력적으로 받들어 이와 같은 훌륭한 인민의 소유물을 창조한데 대해 마땅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인건설자들은 깨끗한 땀방울로, 진한 피로써 조국의 수호자로써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서도 천년만년 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애국의 자욱,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총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정신으로 뚫고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도내인민들과 돌격대원들, 철도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고,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하였다는것과 모 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며 그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선수들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 3개의 우승컵과 34개의 금메달 쟁취

공화국선수들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벨라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과 중국,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비롯한 7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선수 9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은 우승컵 3개, 개인기술상 4개, 금메달 3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공화국선수들은 성인 남, 녀단체, 녀자단체맞서기, 남, 녀호신경기들과 청소년 남, 녀단체, 녀자단체맞서기, 녀자호신경기들에서 각각 1등을 하였다. 김현욱선수는 성인 녀자 개인 2단틀, 맞서기 47kg급경기에서, 합수경선수는 성인 녀자 개인 1단틀, 맞서기 72kg급경기에서, 김남수, 하금광, 왕명국, 림위석선수들은 성인 남자 개인 4단틀, 3단틀, 2단틀, 1단틀경기에서, 김향선수는 67kg급, 77kg이상급 성인 녀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청소년 남자 개인 3단틀,

2단틀, 1단틀경기에서 고금광, 문정룡, 강성선수들이, 녀자 개인 3단틀, 2단틀, 1단틀경기에서 김일향, 최선영, 김지홍선수들이, 청소년 녀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김현아 선수가 각각 1위를 하였다. 청소년 16~17살부류 51kg급, 57kg급, 63kg급, 69kg급 남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한일명, 문정룡, 강성, 림도성 선수들이, 40kg급, 46kg급, 70kg이상급 녀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김지홍, 윤소영, 최선영선수들이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성인부류에서 김남수, 합수경선수는 성인부류에서 문정룡, 최선영선수들이 각각 개인기술상을 받았다.

본사기자

근로자들이 누리는 참다운 사회경제적권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권리를 원만히 누리며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근로자들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루로동시간도 로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정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회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받으며 휴식의 권리도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이것은 8시간로동제에 의한 일간휴식, 일요일주간휴식, 명절휴식, 년간정기유급휴가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정유양과 같은 휴식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이러한 휴식제도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힘을 충분히 회복할수 있게 하며 왕성한 원기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할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았다. 해당 기관들에 의하여 사회보장자들이 빠짐없이 등록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 지불되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정형은 정상적으로 료해장되어 필요한 대책들이 제때에 취해지고있다. 또한 여러 계기에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사

회적범위에서 널리 조직되고 있어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은 날로 더욱 개선되고있다.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이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고있다. 국가는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물질경제생활을 참담히 누릴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특히 근로자들은 국가적혜택에 의하여 국가기본건설투자로 건설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사용료물거의 무로나 다름없이 매우 능숙하게 지분하고있으며 그나마 농민들은 살림집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나라의 고마운 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긍지를 안고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창조적의 구슬땀과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사람들의 직업은 천대만상이며 직업에 대한 편견과 태도는 사회제도 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 한갓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사회적분공으로, 조국을 만드는 영예로운 초소로 되고있다. ◆공화국에는 한 직종, 한 초소에

서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외진 섬분교에 자원진출하여 후 대교육사업에 전념하는 교육자들도 있다. ◆30여년세월 운행길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량뚝무궤도전차 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사들이 최후 기, 허명금부부를 가리켜 사람들은

에 대한 긍지가 없이 일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읊들수 없고 헌신성과 성실성이 나올수 없다. ◆애국심은 특출한 위훈을 세우는 데서만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말은 초소에서 묵묵히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이다. 나 이와 직업은 서로 달라도 이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의 목소리는 하나이다. 《나의 직업,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존엄높은 자주 의 나라, 인민의 나라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는 9월의 하늘가에 람홍색 공화국기가 기운차게 휘날린다. 그 펄럭임소리에 실려 70여년 전 이 나라 강산에 울려 퍼졌던 《인민공화국선로의 노래》가 들려온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성스러운 그 기록이 창공에 휘날린 그날부터 세월이 흘러 이 땅에는 얼마나 극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져왔는가.

백여년전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 많고 락후와 빈궁으로 버림받던 조선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로 행성에 우뚝 올라섰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70여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나라의 운명과 지위에서는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에서 살아보려던 우리 민족의 세기적원망을 풀어주는 공화국의 창건자, 영원한 국가주석이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인 위대한 주체사

상을 창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셨으며 이 땅우에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공화국의 창건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인민의 나라로 솟아오르게 한 역사적사변이었으며 이 땅의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음을 세상에 알린 장엄한 선언이었다.

공화국의 역사는 자주로 빛나는 역사이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과 존엄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고 그러한 나라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이 나라 인민은 그이를 건국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창건되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이 이 땅에 거여든 침략의 무리들을 때려부신 영웅의 나라로 자라날철수 있는것을, 전후 재더미우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존엄떨칠수 있는것도 수령님의 투철한 자주 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인 동시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신념이고 의지였다.

일찌기 10대에 풍남산마루에 오르시어 조선을 빛내일 원대한 맹세를 다지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과 위업을 높이 받들어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셨다.

1990년대 중엽 민족의 대국상과 폭심한 자연재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봉쇄압살책동으로 하여 나라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주

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셨다. 견인발발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인내력으로 그이께서 이어가신 혁명령도의 길에는 비바람과 세찬 눈보라, 령하 수심℃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도 있었다. 그 나날 수

수한 잠바웃과 보풀이인 야전습청소한 공화국이 이 땅에 거여든 침략의 무리들을 때려부신 영웅의 나라로 자라날철수 있는것을, 전후 재더미우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지위우성들,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훌륭히 번모된 농장밭들과 도처에 솟아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애국의 선군장정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덤벼들수 없는 자위의 나라로 더욱 위용떨치게 되었으며 인민들은 자주적인 인민의 존엄을 계속 누릴수 있게 되었다.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자주 의 나라로 빛을 뿌려온 공화국의 역사는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영원한 기치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공화국의 역사는 인민사랑으로 흘러온 성스러운 역사이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역사적인 개선연설에서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바로 우리 조선인민입니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에 의하여 나라

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정치에 참가하며 근로대중이 잘살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인민정권건설의 웅대한 구상따라 이 땅에서는 오랜 세월 무지와 몽매속에서 허덕이던 인민들이 난생처음 땅의 주인, 공장

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세기적변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정권이 인민위전을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

며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이끄셨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조와 군대도, 기념비적창조물들도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며 무상치로제와 무로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시련의 나날에도 변함없이 실시되어온 현실은 공화국의 인민적정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은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반만년력사에서 국력이 최대로 강해진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존엄높은 사회주의 국가의 공민이라는 남다른 긍지속에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어있다. 공화국은 국가사회생활 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오고 있다.

최근년간 인민들에게 분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 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미래 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서 온 나라에 행복분진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 불멸의 자욱을 수놓아가고계신다.

지난 8월 뜻깊은 선군절을 앞두고 세상을 들었다놓은 주체무

기의 성공적목숨은 적대세력들을 끝없는 공포와 궁지에 몰아넣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승전포성이었다.

얼마전에 있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주권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는 인민의 애록과 흠모의 열도는 강렬하며 존엄높은 자주 의 나라, 인민의 나라에 사는 자부심은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경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최근년간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취한 결단들과 조치들에서 국제사회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자주정치의 면모를 실감할수 있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숭고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닌 애민항의 정치가이시다.》, 《오늘 조선이 자기 할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나라로, 자주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결국 령도자의 덕이라고 할수 있다. 그의 령도 아래 조선은 더욱 부강한 모습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정녕 공화국인민이 우리러따르고 세인이 흠모하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무궁영원할것이다.

현철진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9월 어느날이었다.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금 인민들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기쁨과 감격을 목청껏 노래하고싶어하며 애국가를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애국가를 창작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후 창작된 《애국가》의 심의에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라는 시행부터 아래는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다시한번 부르면 선물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조화도 잘될뿐만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연세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애국가》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은금보화가 가득한 나라이며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우리 나라에는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만 한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할 사람들이며 조선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숭고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가》의 선율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것이다.

공화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도록

주체101(2012)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의 경기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경기에 나가 우승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은 참다운 애국자이고 영웅이며 멋쟁이들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국제경기에 나가 우승하고 시상대에 올라선 우리 선수들은 《애국가》가 울리고 공화국기가 게양될 때 누구나 국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우리러며 선수들과 감독들은 세계의 하늘가에 《애국가》의 선율이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올해의 첫아침은 온 나라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린 훌륭한 노래 《우리의 국기》와 함께 밝아왔다.

희망찬 새해의 아침 인민이 걸어갈 승리의 려정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 뒤이어 강산에 울려 퍼진 노래!

가요 《우리의 국기》는 나오자마자 심시에 전인민적인 승가로 불리워지고 온 나라 인민에게 약동하는 힘과 숨결을 부여 주었다.

람홍색공화국기를 형상의 대상으로 하면서 전체 인민의 피끓는 애국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가요 《우리의 국기》는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다.

우리의 람홍색기발 창공높이 날릴제 바라보며 뉘누는 심장 애국의 피로 끓여라 거세한 펄럭임에 조국의 숨결 이르고 목숨처럼 소중한 기록에 인민의 운명 실었네 ...

국기는 나라와 민족, 인민들의 력사와 문화, 전통과 신앙, 지적특성 등을 반영한 각이한 색깔과 도안의 결합으로서 해당 국가의 상징으로 된다.

태양과 자유의 려명, 행운을 상징하는 국기가 있는가 하면 령도의 크기나 종족, 세족의 피줄을 상징하는 국기도 있고 문화와 평화, 힘과 용감성을 상징하는 그런 국기들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공화국기발은 존엄높은 인민의 국기로 나뉘고있다.

노래로 보는 인민의 마음

우 리 의 국 기

국기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잃으면 노예가 되고 치욕의 눈물을 쏟아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나라없던 지난날 울림경기대회 마라손종목에서 1등을 하였지만 제 나라의 기발이 아닌 침략자의 기발을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쓰라린 비극은 목숨처럼 소중한 기록에 인민의 운명이 실려있음을 실증해주었다.

한없는 긍지가 끓여 가슴속고 노래하네 국기는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 이 땅의 념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기록에 찬란히 새겨진 그 별은 승리로 빛발치여라 ...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것으로 알려져있는 어느 한 나라의 국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 기발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병사들을 고무한 당시 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유래가 전해져오기도 하고 또 국기를 두고 나의 자랑, 나의 긍지라고 노래한 작품도 있다.

그러나 전체 인민이 진정 심장의 합창으로 국기를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라고 노래한 실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한 나라의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산천도 아름답고 제

부도 넘치건만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조국의 이름물을 땀땀이 부르기도차 부끄럽다고 하면서 《아 조국아, 우리는 네 품속에서 남처럼 죽어가누나!》라는 서글픈 구절을 남기었다.

나라는 있어도 안아주고 보살피주는 품이 아니라면, 주권은 있어도 인민이 주인으로 되지 못하였다면 그런 조국이 어떻게 전제 인민의 긍지가 되고 기쁨이 될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각도 전란과 분쟁을 등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방황하는 수많은 나라의 피난민들에게 수줍이 안고 갈 국기가 있을수 있겠는가.

창공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에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 깃들여 있었다.

람홍색기발아래서 평범한 인민들이 영웅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국사를 논하는 대의원으로 되는 꿈같은 행복을 받아안았고 따듯한 정이 넘치는 인간사랑의 화원도 보란듯이 꾸러갔다.

인민이 주인된 나라이기에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70여기 성상 영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왔다.

해방후 각계각층 조선대표들과의 담화라는데서 어느 한 나라의 거만한 대표들은 새 조국건설과 관련된 인민의 의사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공부한 물질생활》에 대하여 떠들면서 자기 나라 《민주주의의 우

월성》을 설교하려고 하였다. 그에게 한 농민대표는 조용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의 사회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소?》

《당신들의 법에 녀성들에게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준다는 조항은 있소?》

《당신들의 사회가 (인민을 위한 사회)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로동자, 농민, 녀성들을 내놓고 도대체 인민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평범한 농민대표의 물음들에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한 그 나라 대표가 몇해후 다시 보게 된것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재더미우에서 천리마를 타고 날아오르는 인민의 힘찬 모습이었다.

《이 땅의 념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기록에 찬란히 새겨진 그 별은 승리로 빛발치여라》라는 인민의 가사구절은 인민이 주인된 국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이며 공화국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언제나 력사의 기적만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조국이라는것을 구가하고있다.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기 불멸하리 영광찬 공화국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뉘게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력사와 전통이 아무리 유구하고 훌륭해도 계승되지 못한다면 그 민족은 사멸하기마련이다.

이 땅에 자라나는 세세대들 누구에게나 꿈이 무엇인다고 물으면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에 높이 날리는것이라는 대답을 들을수 있고 끝과 끝을 배우지 못한 칠부자이들까지도 꽃잎같은 손으로 공화국기발을 그리고있다.

그 아이들, 아니 이 나라 모든 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랑과 정의의 힘을 지닌 공화국의 품이 귀중함을 누구나 때부로 절감하기에 공화국기발은 오늘도 빛나지만 래일에는 더욱욱 찬연한 빛으로 누리를 뒤덮을것이다.

인민의 기발로 휘날리는 국기만이 영원히 승리하는 조국의 상징으로 될수 있다는것, 이것이 노래 《우리의 국기》가 력사에 새기는 엄숙한 진리이다.

방대한 령도와 재부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많은 나라의 국기라고 하여 존엄의 상징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오늘 세계의 초점이 조선에 모아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람홍색국기를 보며 세상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내흔들고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공화국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람홍색공화국기는 존엄과 승리의 기치로 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절세 위인들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어

조국통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간곡한 유훈이며 전체 조선민족에게 나신 최대의 민족사적 과제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열의 첫시기부터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수놓으시었다.

은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편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근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제

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에는 각계각층의 동모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파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기에 생의 마지막 시각에도 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다 보아주시고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었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장피에도 아버지수령님처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생의 마지막자욱도 조국통일을 위해 남기신 그런 수령, 그런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의 눈앞에는 짙은 안개 드리운 판문점에 통일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며 수령님의 뜻대로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가슴미여지게 안겨온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친필앞에서 오래도록 절음을 멈추시고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

였다. 절절하게 울린 이날의 교시에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신다고 해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의지가 백백치고있었다.

이런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들에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었다. 뿐만아니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통일애국의 한대소에서 손잡고 나아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숭고한 덕망으로 하여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분열의 력사를 밀어내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로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

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제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제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충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최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71년이 되어온다. 공화국의 70주년력사는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인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애국의 빛나는 로정이다.

공화국정부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여왔다.

공화국은 창건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쏘미량군의 동시철거제안을 내놓는것을 비롯하여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제안, 폭넓은 협상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북남적십자회담제안,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 단계적인 군축제안, 경제회담, 체육회담, 학생회담과 관련한 제안 등 수많은 통일방안과 북남회담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광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의분열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족앞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던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으로써 민족주체적력량의 단합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통일위업수행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확고한 통일의지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도 펼쳐주시었다.

지난 시기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실천적조치로써 1987년에 또다시 10만명의 병력을 축소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평화적건설에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은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공화국은 지난 70여년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을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였다.

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리장이며 일관한 정책이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뒤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가 바로 공화국의 광복정치이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광복정치에 의하여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덕신, 최홍록 등 사상과 정견이 다른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과 동료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애국력량의 단합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기울여온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축전과 같은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이 비상이 강화되고 민족의 자주통일열기는 크게 고조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에 의해 온 조선반도에는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었다.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한광일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70여년



장시

나뭇기라, 위대한 강국의 기치여!

김윤식

맑고 푸른 9월의 창공놀이 눈부신 해살 퍼져가는 이 아침 우리르노라 람홍색 찬란한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약동하는 조국의 역센 숨결인양 힘차게 펴려이는 우리의 국기 이 땅의 천만자식 품에 안아 보살피는 어머니의 옷자락처럼 한없이 정답고 소중한 우리의 이 국기

행성의 곳곳에 이 시각에도 수만과 천만의 비극 그칠새 없어 나사자란 제땅 떠나 남의 나라 기발땀으로 피난의 길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령로는 광활해도 남들의 눈치보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재부는 있어도 주대가 없어 소국의 명에 쓴 나라 이 세계에 어찌 한들뿐이던가

허나 장장 70여성상 어떤 시련에도 역풍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 우리 집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자랑들이 나뭇기엔 람홍색기발이여!

기발이여, 말하라 그 무슨 힘에 떠받들려 창공 아득히 솟아 나뭇기엔것이냐 그 어떤 기적같은 신비함 지녀 력사와 시대의 한복판에 것처럼 당당히 존엄들이 펴려이는데 이나

누구나 바라더라 강대한 나라에서 존엄있게 살기를 허나 땅이 넓고 인구많은 강국이 되고 유구한 력사에 자원이 넘친다고 저절로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거니

추억의 해와 해를 거슬러올라 이 몸을 세워보노라 하얗없이 내리는 눈에 젖고 이 나라 인민의 눈물에 젖은 조기가 무겁게 드리웠던 피눈물의 12월에

세인의 우려가 지구 곳곳에서 울려 나왔다 과연 조선의 앞길은 어떻게 될것인가 람무하는 온갖 억측속에 적대세력이 바라것은 공화국기발이 영영 내리워지는것이였다

다시는 일어지지 못할것 같은 천근만근의 비애의 눈보라속에서 이 조선을 일으켜세워주시분 이 나라 국기를 지켜주시분 그이는 정녕 누구이시었던가

자신의 역세인 손길로 자신의 열과 정으로 인민을 품어 강철의 군상으로 솟구쳐오르게 하신 이 나라를 강국의 리상향으로 나래치게 하신

야, 그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때는 미처 다 알수 없었어라 이제 얼마나 놀랍고 눈부신 사면들이

이 기발밑에서 다계단으로 태어나게 될는지 우리의 공화국기가 고난의 준평을 넘어 얼마나 더 높이 기운차게 나뭇기게 될는지

수령님과 장군님의 애국업적 깃든 우리의 성스런 국기 은 세상이 보란듯이 휘날려가실 열화의 념 애국의 의지 안으시고 강국의 령정을 불같이 달려오신 원수님

얼마였던가 우리 원수님 사생결단의 각오가 없인 한지도 같수 없는 국력강화의 길에 넘고넘으신 험산준령은 고난과 시련의 그 나날들에 새겨진 단단사연은

천백권의 책엔들 어찌 다 담을수 있 으랴 적대세력들의 도전 단호히 짓부시고 위력한 주체병기들의 령이는 성공으로 최강의 전쟁역력력 마련해주신 우리 원수님 불멸의 애국실록을

좋은 날에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어서 재부가 넘쳐 이룩한 업적이 아니어서야, 그이의 심혈, 로고와 맞바꾼 우리모두의 운명과도 같은것이어서 천만심장이 목매여 터치는 부름 원수님은 공화국기의 위대한 수호자!

감격을 말하거니 눈금이 먼저 젖고

격동을 터치자니 가슴이 베어오누나 반만년민족사에 찬란한 강국의 신화세인을 노래우며 매일처럼 태어나고 인민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찬가 끊임없이 탄생하는 내 나라 내 조국

이 땅에서만 것처럼 궁지눌려가 이역의 하늘가에도 높이 휘날려 불수록 가슴벅차고 심장은 놀뛰나니 세기적인 사면들로 이 행성을 달구며 내 나라의 국호와 더불어 빛나는 공화국기발

세계의 정치를 주도하는 주체조국 행성의 제도는 조선을 축으로! 이 불변의 진리가 우주에 짝 차넘치 거니 누구도 감히 무시할수 없는 강국의 위대함과 존엄의 상징 람홍색공화국기발이여!

강국의 존엄 그것이 국력에서 나온다면 그 힘을 마련해주신분은 김정은원수님, 그이가 위대해 나라도 인민도 위대하노라 우리의 국기도 위대하노라

나라가 있고 정권이 있다고 그 땅에 몸담고 산다고 누구나 심장 바쳐 사랑하는것이랴 국가를 상징하는 기발이 있다고 누구나 그앞에 숭배해지는것이더냐

내 다시 이 행성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탄과 비애의 절규에 귀기울이노라

힘이 약하여 민심이 등을 돌리고 강권에 휘둘러 운명을 회롱당하는 그 연약한 국기에는 원한만이 실리 더라

그렇다! 《조국찬가》의 노래부르며 애국의 념이 높이는 이 땅에서 람홍색국기는 그대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복이고 영광이며 승리 목숨도 아깝없을 그 기록은 우리모두의 운명, 삶의 표대

들러오누나 격정의 이 마음속에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신념으로 간직된 《우리의 국기》노래소리 내 경건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구절구절에 진정의 목소리 합치 나니

... 한없는 궁지가 풀어 가슴펴고 노래 하네 국기는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 이 땅의 님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기록에 찬란히 새겨진 그 별은 승리로 빛발치 여라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싶은 노래 이 나라 부변의 기슭에 선경으로 솟아 오르는 삼지연명에서도 울려나온다 인파실리로 설레일 동해기슭에도 이 땅 어디서나 창조되는 행복의 재부

인민의 웃음에 실려 소리높이 울려 퍼진다

얼마나 벅찬 궁지 부풀어오르는가 얼마나 큰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 솟는가 이런 조국의 공민으로 산다는것이 이 기발아래 생을 가꾸고 해와 달 환회로이 맞는다는것이

종이우에 공화국기발 곱게 그려가는 유치원뜨락의 동심은 언제나 아름다우리 하늘갈 어디선가 먹구름 밀려와도 공화국기발 날리는 내 나라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리

기발이여, 공화국기발이여 너를 잃으면 그 순간 우리 삶도 끝나기에 떨어져진 잠지도 살수 없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놓지 않으리 사나운 천지풍과 밀려온 대도 지켜가리라 심장의 뚫는 피 아깝없이 바쳐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이 기발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 이는 영원한 조선의 국풍!

오 해와 별 빛나는 우리의 머리우에 승리와 영광으로 휘날리는 람홍색기발이여 천만년 무궁할 이 땅, 이 하늘아래 위대한 강국의 기치로 영원히 나뭇기라!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국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결의에 넘쳐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자하면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할수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는 력사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전진비약하는 무진막강한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던 금지높은 나날이었다.

그 나날 공화국은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왔으며 나라의 국제적 위위와 영향력도 비상이 높았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에서 세계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이다.

공화국의 위력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단결의 위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화폭들을 끝없이 펼쳐놓고있다.

시련과 난관은 겁쟁이지나 나라의 정치적안정이 확고히 보장된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었기때문이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그 무엇으로

서도 깨뜨릴수 없는 역척의 성세로 다져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근본된 천을 두고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인민이 자나깨나 령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이 일심단결이야말로 공화국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조선의 필승불패성이 있다.

공화국은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철벽의 성세이다. 국력에서 군사력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력한 군력에 평화도, 국가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

막강한 군사적힘은 공화국의 운명수호를 위한 위력한 보검이다. 공화국이 국가방위를 철벽으로 다졌기에 이 땅에서 창조와 건설의 마차 소리가 끊임없이 세차게 울

러퍼질수 있었으며 인민이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올수 있었다. 회세의 령장들의 손길 아래 자라난 무적강군이 있고 최강의 전쟁역제력이 있기에 공화국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불패의 요새로 위용떨치고있다.

공화국은 또한 자력갱생을 원동력으로 하여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강국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천만대중의 강한 정신력과 높은 과학기술력은 공화국의 궁지이며 힘이다.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있다.

공화국의 70여년의 력사는 자력으로 모든것을 개척하고 역세계 다져온 자랑스러운 발전로정이다.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중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리지고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류야동병원, 류정안과 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에 비롯한 의료봉사기지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히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

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은 조선에 대한 외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 누구든 평양에 와보면 그것이 완전한 날조임을 알게 될것이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알아야 한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의 연구소대표단 단장은 사람들 모두가 희망과 소리에 따라 배우고 일하며 근심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수 없는 책역으로 하고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존엄을 빛내여가는 조선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세상, 인민의 나라이다.》

본사기자 김 철



밝고 아름다운 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징이다.

국장은 직관성이 강한 그림형상으로서 해당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적지향과 념민, 그 나라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국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국장처럼 밝고 아름다운 뜻 담고있는 국장은 없다.

여기에는 공화국의 존엄과 강성한 기상, 불패의 위력과 창창한 미래가 비껴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울러잡은 비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민족의 청산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장은 우선 백두산과 붉은 오각별을 통하여 공화국이 계속되고있는 빛나는 전통과 민족자주위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

해나가는 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상징하고있다.

백두산은 민족의 존엄과 기상, 념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위를 개척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셨다.

국장은 백두산을 통하여 공화국이 항일의 전통, 백두의 전통을 계승하고있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가 밝은 빛을 뿌리는 오각별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국장은 또한 붉은 띠와 그우에 새겨진 국호를 통하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정치사상적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은 공화국의 제일국력이며 통일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이다.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여 국장을 타원형으로 한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영원성을 표시하고있다.

붉은 띠 아래부분의 중심에 새겨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국가사업에 참가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국장은 또한 수력발전소와 비이삭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부강번영하는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기초이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떠나 국가의 부강발전엔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국장의 한가운데 새겨진 수력발전소는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고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상징하고있는것으로서 날로 통일번영할 공화국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하게 해주고있다.

국장에 새겨진 비이삭도 지난날 봉건의 질곡속에서 앓은 천대와 멸시,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인민들이 토지개혁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당시의 현실은 물론 앞으로 현대적으로 발전하게 될 농업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국장은 약동하는 조선의 기상인양 더 밝은 빛을 뿌리며 존엄높고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가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홍秉식

튼튼한 자립경제로대, 진정한 인민의 세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립, 자력으로 광명한 미래에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현실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고덕우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은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이역땅에 사는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힘차게 전진해가는 조국의 국력과 발전잠재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류레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제품은 명제품, 명상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자립적경제로대의 위력은 참으로 무진막강하다.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이런 자강력의 강자들이 있기에 공화국의 승리적전진

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각방방단 단장은 《세계를 앞서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과 기백은 정말 대단하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다른 나

라에 의존하고있지만 우리 조국은 자립, 자력으로 엄혹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 한 령도밑에 조국인민들은 반드시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김정숙명철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은 조선에서는

있다. 이러한 일러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속에서 사는 조선의 근로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공교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조선방문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한 일러는 병원들뿐 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월남사회과학원대표단 단장은 몇해전에 조선을 방문할라는데 그때에 비해 정말 놀라게 변모되고있다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의 모습은 경탄을 자아낸다. 현

모적라한 일본노동들은 외면하였다.》

《이제 더는 공화국으로 갈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절망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를 찾아 4명의 낯모름 사람들이 면회를 왔다. 그들중 한사람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효고현본부 사회경제부장이고 다른 세사람은 정훈상선생을 지지하기 위해 일본의 민주번호사들이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땅에서 누가 나를 지켜준단말인가?》

그런 그에게 총련일군은 반드시 공화국의 품으로 갈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때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쏟아지는 눈물

70여년의 장구한 세월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기발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인민들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시각 나뉘는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지나온 한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운에는 정훈상(76살)선생도 있다.

일흔오개를 훨씬 넘어선 정훈상선생이 한생토록 심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훈상사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들처럼 빛났고 기자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에선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76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가 바로 1969년말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훈상사건》의 주인공이다.

《별써 5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때의 일이 어제날처럼 생생합니다.》

1970년 12월 29일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환영진을 친 순안비행장(당시)으로는 한대의 려객기가 착륙하였다. 비행기에서는 공화국기발을 손에 든 한 청년이 내리었다. 그처럼 갈망하던 공화국의 품에 안긴 기쁨에 넘쳐 열정적으로 공화국기를 흔들고 또 흔들던 동료청년, 그가 바로 당시 27살의 정훈상 청년이었다.

▶ 어떻게 되어 고향을 떠나 공화국의 품에 안길 결단을 내렸는지 알고싶다.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난 나의 어린시절은 온갖 박해와 탄압속에 홀리간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나 어린 정훈상과 형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통일투쟁의

그 학교를 졸업하면 2등향해사자격을 받게 되어있었다. 공부도 제일 잘했고 학교 통구주장을 하며 교원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는 《백경이자식》이라고 하여 자격증을 받지 못하였다. 북쪽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속지향은 더욱 강렬해지었다.

(북으로 가자!)

마침내 공화국의 품에 안길 결심을 내리었다.

1969년 8월 공화국복합부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건만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당하게 되었다. 하여 그는 교배구치소의 차디찬 철창속에 갇히우는 몸이 되었다.

국제적십자사에 알려 부모님들이 계시는 공화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의 호소를 남조선의 독재 《정권》과 공

모적라한 일본노동들은 외면하였다.

《이제 더는 공화국으로 갈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절망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를 찾아 4명의 낯모름 사람들이 면회를 왔다. 그들중 한사람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효고현본부 사회경제부장이고 다른 세사람은 정훈상선생을 지지하기 위해 일본의 민주번호사들이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땅에서 누가 나를 지켜준단말인가?》

그런 그에게 총련일군은 반드시 공화국의 품으로 갈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때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쏟아지는 눈물

를 넘긴 사람이라고 하면 믿기 힘들어합니다.》

정훈상선생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비행기에서 내릴 때 손에 들고 흔들었던 공화국기발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이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품은 때로부터 50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행복의 금방석에 앉아 곁같은 나날을 보내어왔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속에 그는 인민경제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대학시절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한적이었던 그는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치료 받고 의료인들끼 친혈육의 정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주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살던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현실이었던것이다.

《사람들은 저의 남편이 일흔을 훨씬 넘긴 나이에 또 청년의 활력에 넘쳐있는것을 보고 여러번이나 죽을 고비

하였다. 정훈상선생의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들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을 졸업하고 중앙기관의 여전한 일군들로 자라났다.》

▶ 가정에 조국통일상상이 3개나 있는데 쉽지 않은 애국자집안이라고 본다.

《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촌형이 받은 조국통일상상장들이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난 정훈상선생의 아버지 정해진선생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겨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애국자였다. 큰아버지인 정해룡선생도 해방후 려운형선생과 함께 통일애국투쟁에 나선 애국자였으며 사촌형인 정훈상선생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싸웠다.

《그들도 람홍색공화국기를 가슴에 안고 통일애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화국기발은 우리 가정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더없이 소중한 기폭으로 간직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훈상선생은 품에 안겨 그같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곁같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한껏 누리고있는 자기를 두고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판이란 두 제도, 두 현실을 살아오면서 순간에 떨어져 살수 없는 은혜로운 조국의 귀중함을 배우고 절감하고있는 정훈상선생, 하기에 그는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안아주는 어머니조국의 정다운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공화국기발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산다.

본사기자 김춘경



나 어린 정훈상과 형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통일투쟁의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려는 반민족적행위

얼마전 남조선국방부가 그 무슨 《군사적대응》을 떠들며 449억US\$로 책정한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올해보다 7.4% 늘어난 것으로서 역대 최대규모라고 한다.

동족과 힘으로 대결해보려는 반민족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첨단무기 도입과 성능개량에 쓰이는 2020년 《방위력개선투입》을 2019년보다 8.6% 늘어난 149억 2000여만US\$로 정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는 3000억급잠수함 건조, 스텔스전투기(F-35A) 도입, 정찰위성개발, 다음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가 속하며 특히 지상대기상선술유도 무기개발에는 2019년보다

106배 증액된 5000여만US\$, 장거리공중대기상유도무기개발에는 2.8배 늘어난 1억 3000여만US\$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정정당당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조치를 구실로 첨단무기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려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과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전력공백을 메꾸는 데 명목하여 230mm대형장포로 《천무》의 대량생산과 전술정보통신체계 도입, 《한국형전투기》 개발과 신형양극(K-2)의 추가생산, 첨단화된 개인전투체계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첨단무기도입과 성능개량, 무기개발 및 현대화가 확고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한 부속항목에 부록으로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북과 남이 평화변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적 압력을 견디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이후 보수세력이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전례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현 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일안보협력체계를 와해시키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려 한다. 《한미동맹》보다 《북중로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냈다. 경솔한 《정부》 때문에 미국이 《적》으로 되고 있다고 고야 대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교부자 미국대사를 불러 지나친 불만표출을 삼가해달라고 간청한데 대해 《한》미 당국이 위협을 느꼈다. 《정부》가 반일운동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니 이제는 반미운동까지 벌려야 한다고 꾀를 부리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나라사랑 진보의교관모임》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협정파기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우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며 북대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에 당달아 남조선보수언론,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세》를 바꾸며 《한미동맹》의 와해까지 끌고가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정적결정 과정에 《한국》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크게 여론화하고 있다.

과연 운운에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이후 보수세력이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전례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현 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일안보협력체계를 와해시키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려 한다. 《한미동맹》보다 《북중로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냈다. 경솔한 《정부》 때문에 미국이 《적》으로 되고 있다고 고야 대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교부자 미국대사를 불러 지나친 불만표출을 삼가해달라고 간청한데 대해 《한》미 당국이 위협을 느꼈다. 《정부》가 반일운동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니 이제는 반미운동까지 벌려야 한다고 꾀를 부리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나라사랑 진보의교관모임》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협정파기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우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며 북대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에 당달아 남조선보수언론,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세》를 바꾸며 《한미동맹》의 와해까지 끌고가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정적결정 과정에 《한국》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크게 여론화하고 있다.

과연 운운에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이후 보수세력이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전례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현 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일안보협력체계를 와해시키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려 한다. 《한미동맹》보다 《북중로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냈다. 경솔한 《정부》 때문에 미국이 《적》으로 되고 있다고 고야 대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교부자 미국대사를 불러 지나친 불만표출을 삼가해달라고 간청한데 대해 《한》미 당국이 위협을 느꼈다. 《정부》가 반일운동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니 이제는 반미운동까지 벌려야 한다고 꾀를 부리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나라사랑 진보의교관모임》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협정파기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우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며 북대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에 당달아 남조선보수언론,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세》를 바꾸며 《한미동맹》의 와해까지 끌고가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정적결정 과정에 《한국》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크게 여론화하고 있다.

과연 운운에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이후 보수세력이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전례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현 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일안보협력체계를 와해시키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려 한다. 《한미동맹》보다 《북중로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냈다. 경솔한 《정부》 때문에 미국이 《적》으로 되고 있다고 고야 대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교부자 미국대사를 불러 지나친 불만표출을 삼가해달라고 간청한데 대해 《한》미 당국이 위협을 느꼈다. 《정부》가 반일운동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니 이제는 반미운동까지 벌려야 한다고 꾀를 부리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나라사랑 진보의교관모임》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협정파기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우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며 북대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에 당달아 남조선보수언론,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세》를 바꾸며 《한미동맹》의 와해까지 끌고가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정적결정 과정에 《한국》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크게 여론화하고 있다.

과연 운운에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이후 보수세력이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전례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현 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일안보협력체계를 와해시키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려 한다. 《한미동맹》보다 《북중로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냈다. 경솔한 《정부》 때문에 미국이 《적》으로 되고 있다고 고야 대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교부자 미국대사를 불러 지나친 불만표출을 삼가해달라고 간청한데 대해 《한》미 당국이 위협을 느꼈다. 《정부》가 반일운동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니 이제는 반미운동까지 벌려야 한다고 꾀를 부리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나라사랑 진보의교관모임》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협정파기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우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며 북대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에 당달아 남조선보수언론,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세》를 바꾸며 《한미동맹》의 와해까지 끌고가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정적결정 과정에 《한국》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규범에 대해 크게 여론화하고 있다.

과연 운운에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외세굴종에 환장한 자들의 추태

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들이 련일 나서서 《실망》이니, 《우려》니 하며 불완전한 협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의 반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강박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민심을 똑바로 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에 대해 더 이상 활가활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들이 련일 나서서 《실망》이니, 《우려》니 하며 불완전한 협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의 반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강박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민심을 똑바로 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에 대해 더 이상 활가활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들이 련일 나서서 《실망》이니, 《우려》니 하며 불완전한 협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의 반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강박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민심을 똑바로 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에 대해 더 이상 활가활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들이 련일 나서서 《실망》이니, 《우려》니 하며 불완전한 협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의 반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강박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민심을 똑바로 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에 대해 더 이상 활가활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반일, 반(지한당) 투쟁을 벌이고있는 남조선인민들

해외동포사회에서 반일투쟁 고조

최근 해외동포사회에서 반일투쟁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해외의 각지에서 동포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책동을 강력히 규탄배격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동포조직들에서는 홈페이지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반대하는 해외의 투쟁소식들과 함께 《일본의 극악한 조선민족살상정책의 산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조선민족의 삶을 살수 없다》 등의 제목으로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과정과 아베내각의 침략야망책동을 폭로하는 기사들을 련일 게재하고 있다.

세계 각국 해외동포연

사들의 련합단체인 해외동포연론사협회에서는 각국의 해외동포연론사들에 일본상품불매와 일본여행을 중단하라는 《NO 일본》 운동에 해외동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송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헬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해외동포들이 일본상품불매결의대회, 일본상품불매결의대회,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련대집회 등을 열고 일본의 뻔뻔스럽고 야만적인 처사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인터넷망들에 일본상품불매운동전문사이트와 반

일투쟁전문사이트들을 개설하고 세계적범위에서의 일본반대투쟁확대를 추동하는 동영상전집물들을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많은 재미동포들속에서는 지난 8월초부터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보내기, 미련방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 현지사회에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알리기 위한 자선거행 등 일본을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들을 벌리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을 지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남

조선의 친일보수세력의 행태도 단죄해나가고 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에서는 남조선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홈페이지에 《시원한 결심》, 《결정 환경》 등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카나다동포단체의 《카나다범민주원탁회의》와 재영국동포신문 《유로저널》을 비롯한 동포단체들과 동포연론들은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라경원과 같은 남조선보수세력들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일본을 비호무둔하는 친일매국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 해외동포들이 초불규관시위를 열어 다음에 《총선》에서 보수세당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본사기자



반일투쟁을 벌리는 해외동포들

천년속적과 입맞추는 반역행위

남조선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배격하는 반일투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일본의 횡포무도한 경제침략행위를 반대하여 정의로운 반일항전에 떨쳐나선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가 안아온 결과이다.

따지고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조선과 일본을 《군사동맹》 관계로 묶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야심, 초불민심에 의해 종말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외세에 빌붙어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여러적은 라산에 의해 2016년 11월 조

작된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구름을 몰아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번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부당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후에도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에 계속 매여달리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군부당국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구실밑에 일본에게 수습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범죄적행위를 감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조선군부당국의 태도는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민족적존엄도, 민심의 분노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년속적과 서슴없이 입맞추는 반역적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력사외교과 양스구진자참배소동, 《평화헌법》으로 뛰어넘기 위한 헌법개정행동,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탕진하면서 진행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스텔스전투기도입사업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형공모함개조소동,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일본의 군국주의의 해괴파병 등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일본의 대북침략야망이다.

그 첫번째 대상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최근에 와서 더욱더 도발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야망도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 노리며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섬나라속을 하는 것이나 같다. 온 남조선 땅이 파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오히려 경제침략만 일삼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규탄으로 부끄럽고 있는 때에 남조선군부당국이 여기에 합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군사적협력에 계속 매여달리고 있으니 쓸개빠진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근부리익을 놓고 우유부단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걸과 속이 다르게 놀아대다가는 차레질이란 민심의 버림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지난 7월에 남조선에서는 《반일종족주의》라는 피상한 제목을 단 도서가 출간되었다.

《리승만학당》 교장 리영훈을 비롯한 5명의 친일학자들이 공동집필한 이 도서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들쭉한 강제징용, 일본군성노예문제 등과 같은 친일공노할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당화한 쓰레기도서인 것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제목부터가 보는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학살을 정당화하고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과 재침야망을 비호무둔하는 친해에 돌도 없는 미국도서로서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치욕을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미국도서출판에 가담한자들이야말로 섬나라오랑캐들의 피가 뼈속까지 들어

관 미국도서로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하루빨리 통치처참해버려야 할 추악한 친일적저작이다.

하지만 도서집필에 가담한 친일분자들은 남조선과 일본의 보수언론들에 출연하여 강제련행이나 노예로 동주강에는 의문만 가득로 다. 력사를 외곡하며 거짓

고 하면서 더러운 친일분자들의 매국행위를 적극 지지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지어 일본의 한 우익출판사는 이 책을 번역출판하겠다고 하였다.

과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창세개명》하고 친일매국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한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후예들

고 하면서 더러운 친일분자들의 매국행위를 적극 지지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지어 일본의 한 우익출판사는 이 책을 번역출판하겠다고 하였다.

과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창세개명》하고 친일매국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한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후예들

를 하는 토착왜구》라고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친일매국의 독버섯들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섬나라속속들과 같은 외세에게 팔아먹으며 재집권야망을 추구는 보수세력이라는 썩은 서식지에서 자라고 있는 데다.

친일매국도들이 활보하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친일매국과 보수의 행성이며 일본의 만고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수세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는 《토착왜구》들의 망동은 이제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너절한 매국도서를 출판한 친일적저작과 이러한 친일매국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비호무둔하는 보수세당을 청산하기 위해 벌리고 있는 투쟁은 지금 온 민족의 지지찬물을 받

속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는 《리영훈출수면의 《반일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꾀까지 늘어놓았다.

친일매국도들이 활보하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친일매국과 보수의 행성이며 일본의 만고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수세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는 《토착왜구》들의 망동은 이제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너절한 매국도서를 출판한 친일적저작과 이러한 친일매국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비호무둔하는 보수세당을 청산하기 위해 벌리고 있는 투쟁은 지금 온 민족의 지지찬물을 받

용납할수 없는 《토착왜구》들의 망동

말만 되풀이해서는 사회가 발전할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수십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진적결과를 담은 것이다.》고 저들의 매국도서를 미화분식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일본의 극우보수세력들도 도서가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과거사청산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진실을 보여 주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조작성 결과 남조선의 반일감정이 자라났다.》

이 아직까지도 활개치고 있는 것은 남조선사회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치이다.

바로 이런 저적무리들이 길잡이역할을 하고있기에 일본반동들이 더욱 기고만강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침략을 단행하고 저들의 과거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이번 매국도서를 출판한자들을 《일본인행세

지금 남조선의 절대다수 사람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경제침략책동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심지어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까지 자기들의 매장에서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명색이 조선사람이라고 하는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이러한 투쟁을 두고 《일본대중의 저급한 반일종족주의》라고 헐뜯는가 하면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강의투쟁》과 《안보장사》, 친일매국행위로 남조선을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한당》을 민심은 매국역적당으로 규정하고 해체할대 대한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 많은 리익을 차지해보려는 계파간의 치열한 계파싸움은 민심의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 날로 험악해지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진 보수세력들이 박근혜의 망령을 되살려 보수세력집과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온갖 악을 다 쓰면서 민심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무리들의 란동을 짓궂게버리지 않는다면 민심이 바라는 정의로는 사회는 고사하고 초불항쟁으로 쫓겨난 소중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게 될것은 뻔하다.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혀야 할 《자한당》과 같은 적폐무리들이 발악을 해명무고 그것은 제목에 걸린 울가미의 끈을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리미영



《토착왜구》

본사

본사기자 김응철

